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2.15~2017.2.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왕사의 깨달음과 원력행 계승을…



나옹왕사 불적답사길

현담 스님 지음
영덕불교문화발전연구원 펴냄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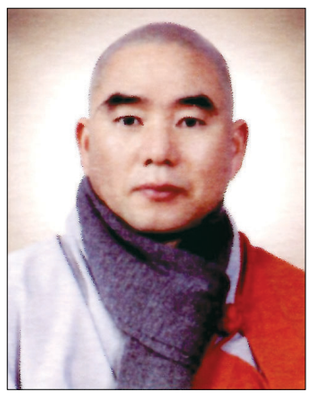
고려 말의 뛰어난 고승인 나옹선사(懶翁禪師, 1320~1376). 호는 강월헌(江月軒)인 선사는 나이 21세 때 문경 공덕산 묘적암 요연선사를 찾아가 출가했다.

전국 사찰을 편력하면서 정진하다 양주 천보산 회암사 석옹화상 회상서 크게 깨달음을 얻는다. 그 때 나이가 24세(1344년)이다. 이후 나옹선사는 원나라 연경으로 건너가 법원사서 인도승 지공선사의 지도를 받고 자선사 처림의 법을 잇는다. 광활한 중국을 주유하고는 공민왕 7년(1358)에 귀국한다. 오대산 상두암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으나 공민왕과 태후의 청이 하도 곡진해 설법과 참선으로 후학 지도에 나선 곳이 황해도 신광사이다. 이 무렵 중국의 홍건적은 쇠퇴해가던 고려를 향해 개경까지 침입해와 노략질을 일삼았고, 공민왕은 한때 노략질을 견디다 못해 남쪽으로 천도한 일이 있을 지경이었다. 나옹선사는 홍건적이 쳐들어와도 오직 설법과 참선 지도에만 전념해 선사의 위엄에 눌린 도적떼는 저도 모르게 부처님께 향까지 사르고 돌아갔다고 전한다.

나옹선사는 혼자라도 절을 지키겠다 다짐했는데 한 신인(神人)이 꿈에 나타나 선사에게 절을 지켜달라고 이른다. 과연 선사가 있는 신광사엔 홍건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았다고 한다. 홍건적의 난이 진압되자 왕은 선사에게 '왕사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근수본지 중흥조풍복국우세 보제존자' 라는 긴 이름의 벼슬을 내렸고, 왕은 또다시 불교계의 중흥을 부탁한다. 이때 선사가 불교중흥의 터전으로 삼은 곳은 순천 송광사였고, 마지막 원력을 펼치는 장으로 회암사를 찾았다.

나옹선사의 지도력은 적극적인 현실참여, 실천하는 선으로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앉아서 참구하는 수행법을 멀리하고 편력의 도정에서 중생을 만나고 제도했다. 염불은 곧 참선이라 했으니 〈가사문학총람〉에 수록된 선사가 지은 참선곡은 오늘까지 널리 수행의 지침으로 여겨진다.

나옹화상의 고향인 영덕군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31일에 비영리 법인단체인 '나옹왕사 기념사업회'가 결성됐다. 고려 공민왕의 스승인 나옹왕사의 깨달음을 통한 대중교화의 큰 발자취를 계승



2008년 나옹왕사 기념사업회 결성
대승교화 큰 가르침 계승발전 목적
전국 사찰에 흩어진 발자취 답사 행장, 관련 학술지 발표글도 수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나옹왕사 불적답사길〉의 저자 현담 스님〈사진 위〉도 사업회 위원으로 위촉돼 왕사의 깨달음과 중생교화 원력행을 가슴속에 새기게 됐다고 밝힌다.

머리말을 통해 저자이자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겸 서남사 주지인 현담 스님은 "영덕서 정진하는 수행자로서 고려시대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인 나옹왕사의 불적답사순례길을 따라 전국을 순례하며 나옹왕사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불적답사로 신심을 다져 오늘 뜻 깊은 출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책에는 불적답사 순례사찰 일람을 비롯해 나옹화상의 행장, 북한 사찰을 비롯해 전국의 나옹왕사 관련 사찰의 역사, 나옹왕사 관련 학술지 발표 글들이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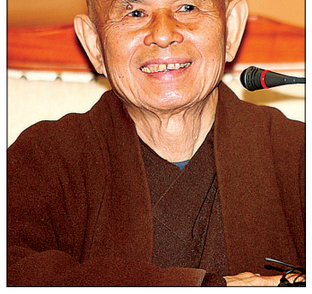
한편 저자인 현담 스님은 1989년 입산출가해 제방 선원서 수행 정진했으며 위덕대대학원서 불교학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또한 스님은 현재 영덕경찰서 경승, 포항교도소 종교위원, 나옹왕사기념사업회위원, 영덕지역사회복지위원, 불교문화발전연구원장, 영해318만세운동기념사업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불교포교와 수행 정진에 매진중이다. 저서로는 〈소통으로 가는길〉(2008년), 〈영덕폐사지불적답사와 불교현황〉(2014년), 〈불교신행성전〉(2015년), 〈그 깨달음의 언어〉(2016년)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산처럼 앉아라, 어떤 바람도 산을 못 넘어뜨린다"

너는 이미 기적이다

틱낫한 지음 | 이현주 옮김 | 불광 펴냄/1만 6천원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사진 오른쪽〉. 〈너는 이미 기적이다〉는 스님의 여러 책과 글에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정신적 깊이를 더해 주는 주옥같은 말씀 365개를 가려 뽑아 만든 선물 같은 책이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세상의 변화,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 상시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타인의 눈 밖에 날까 전전긍긍하며 자기 자신을 잃고 있다.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우리에게 스님은 말한다. "한 그루 나무가 한 그루 나무로서 존재하는 그곳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네가 너로서 존재하는 것이 곧 행동이다." 우리는 자기 아닌 다른 누구가 될 수도 될 필요도 없다.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 이 책의 구절들을 매일 한 줄씩 읽고 숙고하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하루 몇 분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더없는 선물이자 휴식이다. 그 짧은 시간은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좋은 양분이 될 것이다.

틱낫한 스님 감로법문 365개 뽑아
깊은 통찰과 지구 향한 친절 담겨
스님의 전반적 사상 살펴볼 기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자신이 염원하던 무언가가 이뤄지기를, 그리하여 꿈이 현실이 되기를 꿈꾼다. 왜일까? 자신이 비루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 그 자체는 비루하고 불행한 게 아닐 확률이 높다. 그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세상의 변화,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잠시 길을 잃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 상시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포위된 채 타인의 눈 밖에 날까 전전긍긍하다 보니,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위의 좋은 것들을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지도 모른다.

〈너는 이미 기적이다〉를 읽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스님의 글이 우리를 그리로 곧장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구절들을 매일 한 줄씩 읽고 숙고하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더없는 선물이자 휴식이다. 이 책을 읽는 건 단지 하루의 몇 분이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구심점, 소중한 것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인생이 제 길을 찾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불교와 명상에 대한 책뿐 아니라, 심리 치유와 어린이를 위한 책을 비롯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정치, 사회 문제에 답하는 책까지 모두 70여 권을 썼다. 각각이 모두 깊은 통찰과 지구를 향한 친절이 담겨 있는 소중한 책이다.

〈너는 이미 기적이다〉는 이 모든 책의 핵심이라 할 만한 문장들이 모여 태어났다. 이미 스님의 여러 책을 읽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은 독자라 할지라도,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사상 전반을 고루 살펴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내 삶 돌아보면 언제나 스님이 서 계신다

스님의 정원

글 지문조 | 그림 희상 | 담앤북스 펴냄 | 1만 3천원





어릴 때부터 형인 하림 스님과 절에서 자란 저자가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가르침을 준 은사 지하 스님의 희수연을 맞아 축하와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의 솔직하고 위트 넘치는 문장과 어릴 때를 회상하는 이야기는 읽는 이에게 환한 웃음을 주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안겨 준다.

BTN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에 출연한 하림 스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하고 소중한 이야기로 저자의 눈을 통해 본 은사 지하 스님과 형 하림 스님 그리고 슬프기는 해도 아프진 않던 지난 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글은 서른일곱 젊은 나이에 말썽꾸러기 어린 남자 아이 둘을 절에 데려와 건강하게 잘 키워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글이기도 하고, 스님과 함께한 날들을 돌아보며 속가에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생각해 본 글이기도 하다."고 고백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